

피부미용사의 전문직업성 연구

양현옥^{1*}, 곽희영¹

¹원광보건대학 미용피부관리과

A Study on the Professionalism of Estheticians

Hyun-Ok Yang^{1*} and Hee-Young Kwak¹

¹Dept. of Cosmetics,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피부미용사들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을 밝혀보고자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라북도 군산시와 전주시의 피부미용사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별 전문직업성은 연령, 학력, 현 근무지 근무 연수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 직무만족도별 전문직업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삶의 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삶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그렇지 않은 피부미용사보다 높았고($t=2.77, p<.01$), 직무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보통인 피부미용사가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높지 않았다($F=6.06, p<.01$). 둘째, 전문직업성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율성($r=.595, p<.001$), 전문조직의 활용($r=.428, p<.001$),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r=.492,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서비스에 대한 신념($r=-.634, p<.001$),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r=-.485,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fessionalism of estheticians in gusan and jeonju city, jeollabuckdo province. Total 290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 period of research was from april 1 to 20, 2009.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hen their professionalism was checked in light of the selected variables, their age, education and work years at current job mad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ut that was different according to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By life satisfaction, the estheticians who found their lives satisfactory professionalism better than the others who didn't($t=2.77, p<.01$). By job satisfaction, the estheticians who were contented with their job took the most positive professionalism, and those who found their job just not to be bad looked at it less positively than the others who were discontented($F=6.06, p<.01$). Second, when the correlation of their professionalism of the sub-factors was investigat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among faith in autonomy($r=.595, p<.001$), use of professional organization($r=.428, p<.001$) and sense of mission($r=.492, p<.001$). Their faith in services($r=-.634, p<.001$)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to faith in self-control($r=-.485, p<.001$).

Key Words : the professionalism, esthetician

1. 서론

21C에 들어와서 피부미용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일회성 소비로 그쳤던 '피부미용'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문화로 인식이 전환된 것이다[6]. 피부미용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화가 되었다는 것은 2008

년 현재 피부미용관리 업체 수는 17,353개소, 종사자수는 5만 3천명에 이르며 피부미용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4년제 대학을 포함하여 140여개의 미용관련학과, 그 외 학점은행제도 및 직업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원 등이 약 200여 개소에 이르며, 시장규모는 1조 6천 6백억 원으로 화장품 제조 산업의 35%에 해당한다는 통계자료

*교신저자 : 양현옥(hyyang@wkhc.ac.kr)

접수일 09년 05월 26일

수정일 (1차 09년 06월 08일, 2차 09년 06월 15일)

게재확정일 09년 06월 17일

[8]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한류에 따른 한국의 뷰티산업 전반에 대한 아시아인의 관심 증대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인력 수출의 호조로 세계적인 뷰티기술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국제 경쟁력 증대, 뷰티 전문 교육기관과 화장품 산업을 연계한 국가 수출 증대 및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한 고급 미용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피부미용 산업의 근간인 피부미용을 주된 업무로 다루고 있는 피부미용사는 종전까지 헤어를 위주로 하는 미용사자격증에 포함되어 국가자격을 부여해 왔지만 2008년도 하반기부터 산업인력공단에서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로 분리된 국가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피부미용사라는 전문직종의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피부미용사 자격제도의 분리와 국가자격증 제도화는 피부미용 업무가 공중위생 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이고, 머리, 피부미용, 화장 등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는 미용의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피부미용을 자격제도화 함으로써 피부미용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2008년 하반기부터 국가자격증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피부미용사라는 직종은 전문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직은 직업성원들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이러한 전문직의 특성에는 체계적인 지식기반, 윤리강령, 자율성, 권위, 제도화된 교육, 전문적인 문화, 사회적 재가(sanction), 자격증제도 등이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사라는 직종이 전문직으로 전환된 점에 착안하여 그들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피부미용사들이 보다 긍정적인 전문직업성을 갖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자기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피부미용사

피부미용을 의미하는 에스테틱(Esthetic)은 약 200년 전 독일의 학자 바움갈덴이 “미는 인간에게 만족감과 쾌감을 주는 대상이며,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감성의 미학 차원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에스테틱(Esthetic)의 뜻은 미학(美學), 심미(審美), 미의식(美意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피부미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독일은 Kosmetik, 영국은 Cosmetic, 프랑스는 Esthetique, Soin Esthetique, 미국은 Skin Care, Esthetic, 한국은 피부미용이라 칭하고 있으며[5],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현재 피부미용업은 개인 대상의 기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에 한 영업형태로서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팩,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손님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 활동으로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분석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피부미용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사(피부)에 속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의 ‘위생’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의 6개 업종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유일하게 미용업과 이음업은 면허를 필요로 하는 영업 분야이다. ‘미용업’이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다른 영업들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표 1).

한편, 피부미용을 담당하는 사람의 명칭을 우리나라에서는 피부미용사라고 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전문 피부관리사(Skin care specialist), 프랑스는 에스테틱(Esthetic), 독일은 코스메티커린(Kosmetikerin)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독일 직업박람회를 통해 피부관리사라는 직업형태를 최초로 접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여성기능교육의 일환으로 1981년 이후 YWCA 여성직업개발부에서 주관하여 피부미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고 7개월 과정(900~1200시간)을 이수한 후 피부미용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피부 관리 전문교육기관이 증가됨에 따라, 2006년 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에 미용사(피부) 종목을 신설하고 그 시험과목을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07년 보

[표 1] 공중위생관리법 산업분류에 의한 미용업의 특징

구분	미용업	이음업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대인접촉성	가장 높음	가장 높음	간접적	간접적	비접촉	비접촉
면허대상성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고객 선체접촉 정도	높음	높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기기사용 정도	높음	높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대학교육 연계	학과설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생관리 규율대상	대고객서비스	대고객서비스	수질	없음	기계, 세계	사용 장비, 약제

출처 : 황순옥 외(2008).

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용사(피부) 국가기술 자격종목을 신설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피부미용사와 관련한 업무 영역은 선진국에서 보다 체계화된 제도와 자격관리를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부미용의 효율을 높이는 보조 장비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어 과학적인 피부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피부미용과 관련된 산업은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들의 취업분야 역시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피부미용사의 취업분야는 피부관리실의 피부관리사매니저, 피부과 병원의 피부관리사, 피부관리실 경영, 화장품 판매업, 화장품회사 제품기획, 피부미용학원 강사, 문화센터 강사, 대학 강사, 미용관련 잡지, 컨설팅, 이벤트 상담자 등이다.

향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뷰티서비스 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바이오화장품, 피부 관리 전문화장품 등 신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예상되므로 화장품산업과의 동반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평가 등이 정립되어가는 현 사회현상을 고려해 볼 때 피부미용업은 향후 더욱 전문직업 군으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2 전문직업성

전문직은 직업구성상의 한 하부단위로서,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업 가운데 일부만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전문직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일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해 외적 간섭 및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독점(monopoly)과 자율성(autonomy)으로 표현되는데 독점은 “집단의 일원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며 자율성

은 “내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행동에 있어서 외부의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10].

또한, 전문직업성이란 전문직이나 전문인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하는 행동, 특성 등을 말하는데 전문직업성 척도(Professionalism Scale)를 개발한 Hall(1968)은 11개 전문직 32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9]에서 다른 일반직으로부터 전문직을 구분해 줄 수 있는 일련의 중요한 속성들을 제시해 주는 준거를 전문조직의 활용,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서비스에 대한 신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자율성에 대한 신념 등 5가지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에 대하여 10문항씩 총 50개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표 2 참조).

Snizek(1972)은 전문직 종사자 566명을 대상으로 Hall의 척도를 수정하여 각각의 차원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으며[11], 우리나라에서는 김문조(1989)가 Hall의 전문직업성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사용[1]하였으며, 이를 박종우(1994)[4], 박승규(2001)[2] 등이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내용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사들의 변인별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과 전문직업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연구내용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피부미용사의 변인에 따라 전문직업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피부미용사의 전문직업성 하위요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표 2] 전문직업성의 구성요인과 내용

구성 요인	내 용
자율성	대상자, 전문가가 아닌 사람, 고용조직 등과 같은 외부의 압력 없이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
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신의 전문직이 사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믿는 것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동료에 대한 통제의식으로 오직 동료들만이 자신의 전문직 활동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전문조직의 활용	자신의 활동에 대한 가치, 이상, 평가, 정체성, 신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으로 조직을 활용하는 것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보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활동에 의미를 가지고 헌신, 몰두하는 것

출처: 박종우(1994).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전주시의 피부미용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부미용관리사들이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직접 군산시와 전주시의 피부미용관리실 원장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설문지를 배부하거나 E-mail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293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293부 중 무응답 및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29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3.3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김문조(1989)가 Hall의 전문직업성 측정도구를 번역하여 개발한 5개 요인에 따른 25문항이며, 이를 피부미용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Likert의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3.4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회수된 설문지는 표준화 및 부호화 과정을 거쳐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전문직업성 5영역의 신뢰도 검증(Cronbach α), 전문직업성 구성요소 하위 영역별 평균과 표준 편차, 관련 변인별 전문직업성 차이 검증(one-way ANOVA, t-test, Duncan 검증), 전문직업성 하위 영역간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피부미용사의 전문직업성 측정에 사용된 5영역에 대한 신뢰도 검정을 한 결과, 전체 신뢰도는 .79이었고, 하위 영역별에서도 모두 Cronbach's α 가 0.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피부미용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3), 연령별로는 20~29세 46.6%, 30~39세 34.1%, 40세 이상 19.3%의 순으로,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59.0%, 대졸 이상 32.8%, 고졸 8.3%의 순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9.0%, 만족 45.5%, 불만족 5.5%의 순으로, 직무만족도는 보통 55.2%, 만족 36.2%, 불만족 8.6%의 순으로, 현 근무지 근무 연수는 2년 이하 59.3%, 2~3년 34.5%, 4년 이상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피부미용사들의 전문직업성

피부미용사들의 전문직업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4),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85점으로 피부미용사들은 전문직업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업성의 하위영역별로는 '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3.29점, '자율성' 3.09점,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3.02점 순으

[표 3] 피부미용사들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 령	20~29세	135	46.6
	30~39세	99	34.1
	40세 이상	56	19.3
학 령	고졸	24	8.3
	전문대졸	171	59.0
	대졸 이상	95	32.8
삶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6	2.1
	만족	126	43.4
	보통	142	49.0
	불만족	14	4.8
	매우 불만족	2	0.7
직 무 만족도	매우 만족	1	0.3
	만족	104	35.9
	보통	160	55.2
	불만족	24	8.3
	매우 불만족	1	0.3
현 근무지 근무 연수	2년 이하	172	59.3
	2~3년	100	34.5
	4년 이상	18	6.2
합 계	290	100.0	

[표 4] 피부미용사들의 전문직업성

구 분	M	SD
자율성	3.09	0.53
서비스에 대한 신념	3.59	0.51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3.02	0.79
전문조직의 활용	2.63	0.74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3.29	0.68
전문직업성 전체	2.85	0.33

[표 5] 연령별 전문직업성

구 분	20~29세 (n=135)		30~39세 (n=99)		40세 이상 (n=56)		전 체 (n=290)		F	p
	M	SD	M	SD	M	SD	M	SD		
자율성	3.09	0.48	3.05	0.57	3.14	0.59	3.09	0.53	0.43	0.650
서비스에 대한 신념	3.51	0.47	3.64	0.52	3.69	0.55	3.59	0.51	3.03	0.050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3.00	0.81	3.15	0.77	2.84	0.76	3.02	0.79	2.90	0.057
전문조직의 활용	2.52	0.73	2.75	0.77	2.69	0.66	2.63	0.74	2.95	0.054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3.22	0.65	3.30	0.63	3.43	0.81	3.29	0.68	2.00	0.137
전문직업성 전체	2.85	0.27	2.83	0.39	2.90	0.35	2.85	0.33	0.67	0.514

로 나타났으며, ‘전문조직의 활용’이 2.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상과 같이 피부미용사들은 전문직업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전문직업성 중에는 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가장 높았고, 전문조직의 활용이 가장 낮았다.

4.3 피부미용사들의 변인별 전문직업성

4.3.1 연령별 전문직업성

피부미용사들의 연령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표 5), 자율성은 40세 이상인 피부미용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29세, 30~39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40세 이상, 30~39세, 20~29세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은 30~39세, 20~29세, 40세 이상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조직의 활용은 30~39세인 피부미용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세 이상, 20~29세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40세 이상, 30~39세, 20~29세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인 전문직업성은 40세 이상인 피부미용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9~29세, 30~39세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피부미용사들의 연령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 피부미용사들은 연령에 따라 전문직업성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3.2 학력별 전문직업성

피부미용사들의 학력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표 6), 자율성은 대졸 이상, 고졸, 전문대졸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서비

[표 6] 학력별 전문직업성

구 분	고졸 (n=24)		전문대졸 (n=171)		대졸 이상 (n=95)		전 체 (n=290)		F	p
	M	SD	M	SD	M	SD	M	SD		
자율성	3.10	0.71	3.07	0.51	3.11	0.52	3.09	0.53	0.15	0.860
서비스에 대한 신념	3.37	0.62	3.63	0.52	3.58	0.45	3.59	0.51	2.75	0.066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2.87	0.98	3.07	0.83	2.98	0.67	3.02	0.79	0.86	0.425
전문조직의 활용	2.88	0.67	2.62	0.77	2.60	0.67	2.63	0.74	1.57	0.211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3.42	0.86	3.28	0.67	3.26	0.65	3.29	0.68	0.53	0.591
전문직업성 전체	3.00	0.43	2.83	0.33	2.86	0.29	2.85	0.33	2.66	0.071

스에 대한 신념과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은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조직의 활용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인 전문직업성은 고졸, 대졸 이상, 전문대졸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에서 피부미용사들의 학력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 피부미용사들은 학력에 따라 전문직업성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3.3 삶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

피부미용사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표 7), 자율성은 삶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그렇지 않은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피부미용사가 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43, p<.05$).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은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피부미용사가 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문조직의 활용은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피부미용사와 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삶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그렇지 않은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며, 삶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04, p<.001$).

전체적으로 전문직업성은 삶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그렇지 않은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77, p<.01$).

이상에서 피부미용사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피부미용사가 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높았으며, 삶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그렇지 않은 피부미용사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전문직업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3.4 직무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

피부미용사들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표 8), 자율성은 직무에 대해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족하는 피부미용사, 보통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직무만족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직무에 대해 불만족할수록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조직의 활용은 직무에 대해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만족하는 피부미용사, 보통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높았고, 보통인 피부미용사가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낮았으며, 직무만족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1.24, p<.0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표 7] 삶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

구 분	만족한다. (n=132)		만족하지 않는다. (n=158)		전 체 (n=290)		t	p
	M	SD	M	SD	M	SD		
자율성	3.10	0.57	3.07	0.50	3.09	0.53	0.43	0.666
서비스에 대한 신념	3.51	0.53	3.66	0.48	3.59	0.51	-2.43*	0.016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2.98	0.85	3.05	0.75	3.02	0.79	-0.73	0.464
전문조직의 활용	2.63	0.76	2.63	0.72	2.63	0.74	-0.08	0.937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3.46	0.70	3.14	0.63	3.29	0.68	4.04***	0.000
전문직업성 전체	2.91	0.37	2.80	0.29	2.85	0.33	2.77**	0.006

*p<.05, **p<.01, ***p<.001

[표 8] 직무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

구 분	만족 (n=105)		보통 (n=160)		불만족 (n=25)		전 체 (n=290)		F	p	Duncan
	M	SD	M	SD	M	SD	M	SD			
자율성	3.13	0.60	3.04	0.46	3.17	0.64	3.09	0.53	1.31	0.271	-
서비스에 대한 신념	3.54	0.54	3.61	0.48	3.65	0.56	3.59	0.51	0.79	0.454	-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2.94	0.91	3.06	0.72	3.10	0.69	3.02	0.79	0.93	0.395	-
전문조직의 활용	2.67	0.82	2.57	0.65	2.89	0.82	2.63	0.74	2.34	0.098	-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3.53	0.71	3.14	0.64	3.18	0.50	3.29	0.68	11.24***	0.000	a>b=c
전문직업성 전체	2.94	0.37	2.80	0.30	2.87	0.30	2.85	0.33	6.06**	0.003	a>b

p<.01, *p<.001

피부미용사와 보통인 피부미용사 그리고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전문직업성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 보통인 피부미용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6.06, p<.01$).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와 보통인 피부미용사 그리고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에서 피부미용사들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다른 피부미용사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전문직업성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4.3.5 현 근무지 근무 연수별 전문직업성

피부미용사들의 현 근무지 근무 연수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표 9), 자율성과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은 현 근무지 근무 연수가 2~3년인 피부미용사가 다른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현 근무지 근무 연수가 2년 이하인 피부미용사가 다른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조직의 활용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현 근무지 근무 연수가 4년 이상인 피부미용사가 다른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인 전문직업성은 현 근무지 근무 연수가 4년 이상, 2년 이하, 2~3년인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피부미용사들의 현 근무지 근무 연수에 따른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 피부미용사들은 현 근무지 근무 연수에 따라 전문직업성의 차이가 없었다.

4.4 전문직업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전문직업성 하위요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10),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자율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은 자율성($r=-.176,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否)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서비스에 대한 신념($r=.247,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正)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문조직의 활용은 자율성($r=.18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자율성과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전문조직의 활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서비스에 대한 신념($r=-.230,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전문직업성은 자율성($r=.595, p<.001$)과 전문조직의 활용($r=.428, p<.001$),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표 9] 현 근무지 근무 연수별 전문직업성

구 분	2년 이하 (n=172)		2~3년 (n=100)		4년 이상 (n=18)		전 체 (n=290)		F	p
	M	SD	M	SD	M	SD	M	SD		
자율성	3.07	0.55	3.13	0.49	2.98	0.54	3.09	0.53	0.71	0.493
서비스에 대한 신념	3.62	0.52	3.55	0.46	3.55	0.61	3.59	0.51	0.59	0.554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3.03	0.76	3.05	0.84	2.76	0.79	3.02	0.79	1.09	0.337
전문조직의 활용	2.67	0.71	2.53	0.78	2.81	0.71	2.63	0.74	1.64	0.196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3.33	0.66	3.18	0.68	3.51	0.76	3.29	0.68	2.68	0.070
전문직업성 전체	2.85	0.35	2.84	0.29	2.93	0.39	2.85	0.33	0.62	0.541

[표 10] 전문직업성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구 분	자율성	서비스에 대한 신념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전문조직의 활용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전문직업성 전체
자율성	1.000					
서비스에 대한 신념	-0.048	1.000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	-0.176**	0.247***	1.000			
전문조직의 활용	0.183**	-0.080	0.108	1.000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0.035	-0.230***	-0.002	0.113	1.000	
전문직업성 전체	0.595***	-0.634***	-0.485***	0.428***	0.492***	1.000

p<.01, *p<.001

($r=.49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서비스에 대한 신념($r=-.634, p<.001$),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r=-.485,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에서 전문직업성 하위요인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피부미용사들은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낮으나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높으며, 전문조직의 활용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았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낮았다. 또한 전문직업성이 높을수록 자율성과 전문조직의 활용,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높으며, 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5.1 요약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연령별로는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삶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만족, 불만족, 직무만족도는 보통, 만족, 불만족, 현 근무지 근무 연수별로는 2년 이하, 2~3년, 4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부미용사들의 전문직업성은 평균이 2.85점으로 전문직업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별로는 ‘서비스에 대한 신념’(M=3.59),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M=3.29), ‘자율성’(M=3.09),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M=3.02), ‘전문조직의 활용’(M=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피부미용사들의 변인별 전문직업성을 살펴본 결과, 연령, 학력, 현 근무지 근무 연수별 전문직업성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삶의 만족도, 직무만족도별 전문직업성의 차이가 있었다.

삶의 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서비스에 대한 신념은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피부미용사가 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높았으며($t=2.43, p<.05$),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삶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그렇지 않은 피부미용사보다 높았다($t=4.04, p<.001$). 전체적인 전문직업성은 삶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그렇지 않은 피부미용사보다 높았다($t=2.77, p<.01$).

직무만족도에 따른 전문직업성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높았고, 보통인 피부미용사가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낮았으며($F=11.24, p<.001$), 전체적으로 전문직업성은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보통인 피부미용사가 불만족하는 피부미용사보다 높지 않았다($F=6.06, p<.01$).

넷째, 전문직업성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율성($r=.595, p<.001$)과 전문조직의 활용($r=.428, p<.001$),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r=.49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서비스에 대한 신념($r=-.634, p<.001$),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r=-.485,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5.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피부미용사들이 보다 긍정적인 전문직업성을 갖고,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자기 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피부미용사들의 전문직업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 중에서도 전문조직의 활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 자격 피부미용사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조직적인 협회의 부재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로 피부미용사들의 직무교육과 연수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고 조직력 있는 피부미용사협회의 창설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피부미용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정책적인 유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직업성은 삶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그렇지 않은 피부미용사보다 긍정적이었고,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피부미용사가 가장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미용사들의 삶에 대한 만족과 직무에 대한 만족이 선행되어야만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부미용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전문직업인인 피부미용사의 지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인인 경영주와 피고용인인 피부미용사가 모두 노력을 경주해야만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직업성의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서비스에 대한 신념과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에 대한 신념이 자기규제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부미용사들의 전문직업성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유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사지역을 전라북도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

였으며, 조사대상도 일부 피부미용관리사들로 국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좀 더 광범위한 지역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피부미용관리사의 전문직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김문조, “한국의사의 직업의식”, 현상과 인식, 제13권, 제1호, pp. 26~52, 1989.
- [2] 박승규,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3] 박용오,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이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 박종우,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5] 이재형·송인영, “미용과학 용어”, pp. 34~36, 현문사, 2002.
- [6] 이한웅, “피부미용사제도 입법방안에 관한 소고”,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2권, 제1호, pp. 93~102, 2004.
- [7] 전병제 외,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 pp. 9~15, 박영사, 1995.
- [8] 황순옥 외,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p. 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8.
- [9] Hall, R.,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SR: 92-104, 1968.
- [10] Rothman, R. A., “Working Sociological Perspectives”, Prentice-Hall, 1987.
- [11] Snizek, W.. “Hall’s professional scale: a empirical reassessment”, McGraw-hill, 1972.z

양 현 옥(Hyun-Ok Yang)

[정회원]



- 1996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04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 미용피부관리과 부교수

<관심분야>
피부미용, 향장학

곽 희 영(Hee-Young Kwak)

[정회원]



- 2005년 2월 :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대학원 (미용학석사)
- 1990년 3월 ~ 현재 : 까까피부관리실 원장
- 2004년 4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 미용피부관리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피부미용, 발관리